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432호

서기 2003년 7월 30일 수요일

법공양 페이지

칠석은 산 사람이 촛불을 밝히듯 내 마음을 밝혀서 다스리는 날

칠석과 칠성부처님에 대해

문 칠석은 일월칠성신앙, 특히 칠성(七星)을 신앙하던 토속신앙이 불교와 융합된 전통 신앙으로서 칠석이 되면 처성광 부처님께 정성 어린 공양을 올리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의 뜻으로 볼 때 칠석과 칠성 부처님의 관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답 칠석날 촛불을 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의 밝음을 그대로 연결해서 내가 밝아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산 사람이 촛불을 밝히듯이 내 마음을 밝혀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칠석날이 산 사람을 위해서 정해진 날이라면, 백중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한 날이니 마음이 육근 안에 있을으로써 남과 같이 있으니 '칠'이요, '석'이라고 하는 건 밝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틀이 아니기에 항상 만나려고 애쓸 일도 없거니와, 항상 밝았으니 죽고 사는 게 어디 있으며 땀들 게 어디 있었느냐는 얘깁니다. 동서가 틀이 아니고 남녀가 틀이 아닌데 어찌 이것이 틀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항상 마음의 불을 켜야지요. 노예로서 남의 덕만 보려고 해서 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남한테 지배만 받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부부가 참 정답게 살았답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답게 살면서 못어 하다가 한 사람이 일찍 죽었습니다. 한쪽이 일찍 죽으니가 남은 사람은 항상 그 마음으로써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살다가 말입니다. 그 아내를 좇아가니까 그 여인은 벌써 남편을 좇아서 이 세상으로 나왔답니다. 그랬으니 포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은 다시 또 열원을 하다가 남편을 좇아가니까 남편은 또 들어오게 됐죠. 그러나 그녀를 맞추려니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나중에는 풀다, 풀다 스쳐가 기만 하고, 즉 북쪽을 향해서 스쳐가지만 하면서 그렇게 열원을 했습니다. 열원을 해서 만나보기를 그렇게 열원했건만 기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걸렸는지 모르답니다. 그 기일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나이가 맞지 않으면 안 되죠. 나이가 맞지 않으면 부부로서 살 수가 없는 거죠. 10년 이 위다 20년이 위다 30년이 위다, 어른하고 애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려니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뒤쫓아 나왔는데 뒤쫓아 나와도 어린애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면서 또 뒤고 뒤아서 왔다가 또 다시 가면서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그저 허덕거리며 하다보니까는 하나는 상놈의 집 딸로 나오고 하나는 양반의 집 아들로 나왔으니 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집의 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그렇게 빌었답니다. 나는 언제나 상놈을 벗어나서 저 양반하고 살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은연중에 인연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얘기이니까 그렇지, 여러분도 그렇게 인연 따라서 도는 겁니다. 인연 따라서 사귀듯이 한테 모인 거고, 인연 따라서 정자인들이 한테 모인 겁니다. 또 차원 따라서 상업자들이 한테 모인 겁니다. 은은 은대로 한테 모이고 금은 금대로 한테 모이는 겁니다. 그 차원에 따라서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니까 차원에 따라서 그것을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보니 나중에는 정성으로까지 살게 됐고, 주님이 일찍 죽으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 열원을 하면서 그렇게 3년 동안, 상등성이 밑에 가서 그 본의 자손들이 시묘살이 하고 있는 거를 피해 그 밑에 가서 그렇게 열원을 하고 애를 썼ler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똑같은 문벌을 가지고 똑같은 양반의 집으로 태어나서 틀이 제미있게 살았다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한번 만나서 살다가 인연에 따라서 너무도 어려웠다는 얘깁니다. 그랬는데 그 부부가 살면서 그거를 알았답니다. 부부의 인연이라는 건 잠시잠깐 뜬구름같이 사는 건데 우리가

가 모르고 이날까지 열원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처님 앞에 가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양쪽이 다 그것을 알고는 30이 넘어서 40이 가까울 때 입산을 해서 승려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가를 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칠성'이라는 것은, 바로 육신 안에 바로 내님이 계시고, 내님 안에 밝음이 있으니 이것이 칠성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마음에 의해서 여러분의 명과 또는 이름을 다 가시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고 들면서 너무도 해했던 그 인연에, 자기의 깨우침에 의해 눈물을 흘리면서, 명이 길게 해주시고, 항상 잘 살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항상 보배로서 길잡이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칠성이라는, 칠성이라고 하는 그 뜻은 밝았다는, 여러분이 사람이기에 바로 부

칠석같이요. 칠석날은 영원한 오늘의 자기 마음 그대로 밝음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러나 바로 인당이고,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이요, 항상 꺼지지 않는 그 불은 그렇게 원자력이, 큰 능력이 풍부하고, 천차만별을 다 가지고 응용하기 때문에 바로 자유인의 응용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동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북쪽이 있고 서쪽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과 생사가 틀이 아닌 그 깨달음에 오늘이 밝은 칠석날을 정해놓은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도 칠석이라고 가시다보면 부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의 몸을 가지고 그 뜻을 모른다면 세세생생에 떠돌리면서 업보의 고를 어떻게 받으시렵니까. 그러나 몸이 무너지



쳐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밝음을 가질 수가 있고, 밝음을 가졌기 때문에 넘은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차로에서 엮매이고 찾으려고 애를 쓰고, 만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날을 정해줬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산 사람을 위해서 촛불을 켜야 한다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살면서 차원에 따라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항상 차원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밝히고 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 이치 아닙니까.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일체 만물이 그렇듯이 우주의 섭류도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나 하나가 불을 낳았으면 그 불은 바로 내 미래이고 바로 나이기 때문에 별성의 그 능력을 다 거기에, 예너지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생동력 있게 해나가면서도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을 수 있기를

그래서 껌대기만 떨어지고, 껌대기가 떨어져도 여기 땅에까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땅에까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녹아버리기 때문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허공에도 그렇게 전력이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올 때나 어떠한 때는 쇠불이나 이런 것을 지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쇠에 붙으면 전력이 붙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에도 그러한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력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으로서 이 몸통이가 생기고, 모든 물체가 지수화풍 아닌 게 없고, 생명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 깨우침을 상징해서 칠석날로 정해놓은 거는, 다 각자 여러분의 몸 자체가 칠석같이요. 몸속에 바로 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부처님은 항상 밝아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면 그대로 밝아있는

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 알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욕심이 진보의 요인 아닐까요?

문 모든 선지식들께서는 항상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늘 그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가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소극적이고 발전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가정과 보다 나은 사회, 보다 나은 자기의 생활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인간의 본능일진대 어떻게 그 마음을 깨끗하게 갖고 욕심을 자버리면서 살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사실 욕심을 버리면 진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록 월급쟁이지만 보다 좋은 가정과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싶은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자기발전을 위한 욕심마저도 잘못한 것인지요?

답 그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나쁜 것이라든 좋은 것이라든 좋은 것이라든,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자기는 관리인이자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관리인! 자기 몸통이는

자기 마음의 시지일 뿐이고 만약에 자기에게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거라 생각한다면, 사람으로 자기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타나게 도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유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욕심을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을 놓으라고 그러는 것은 반드시 스스로, 즉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올라서겠다는 생각 자체가 스스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욕심이 아닌 깨달음, 모든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 내 주인에게 모든 거를 맡기고 노라! 내가 스스로 욕심을 청원하되 외려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사랑을 하지 말겠나요, 돈을 갖지 말겠나요? 위대한 사람이 되길 말겠나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지 말라고 했나요. 철학을 공부하지 말라고 했나요? 모든 것을 생동력있게 해

문 스님께서는 내 안의 참나를 발원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세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나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단지 계알에 닿지는 병고와 삶의 무개만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기쁨이든 아픈 상념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는지요? 힘든 살속에서 복을 구하는 삶이 정말 잘못인가요?

기복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

답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기복으로 부처님께 아주 지극하게 다녔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하면 저렇게 하면서, 또 무슨 백 일을 기도드리라 그러면 백 일을 그냥 떨치기도 먹지 않고 식구들도 먹이지 않으면서 국 하나도 끓여 주지 않으면 열심히 다니기는 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어디 부처님 법입니까?

그러다가 늙어서 죽었는데 소가 됐어요. 참, 사람으로 살다가 소가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껌대기 소지만 안은 사람이니 기가 막혀요. 그런데 자기 모습이 소니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촌에서 주인이 끌고 다니며 밭을 갈고 하는데, 노닐 일을 하고도 같이 나질 않는데다가 웬만하면 막 후려갈기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동자가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를 봤어요. '부처님, 부처님! 나는 왜 그렇게 일생을 두고 지극하게 정성을 들이고 했는데 어찌 소가 됐습니까?' 하니까 '너는 남이 사는 데만

복으로 또 되니까 혼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큰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해서 아주 일체를 건너는 선지식이 됐단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스울지 모르지만 '부처님 법' 이러면은 그저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기복으로서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또는 물건을 갖다 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으로 이렇게 공을 들였으니까 해주시길 테지.' 하는 의지심, 그런 것도 여기에는 붙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억겁을 거치고 광년을 거쳐서 모습을 바꿔 나투어가면서 진화해서 이날까지 끌어온 자기의 주인공의 뜻을 배신 아닌 배신을 하면서 바깥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찾아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복으로 나갈 때면 내 몸에도 이득이 없고 내 가정에도 이득이 없고, 나라에도 이득이 없고, 사회에도 이득이 없어요. 이런 하나가 잘못될으로써 여러 가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극복하는 데 있어 '나 아닌 누가 하겠지' 라고 미루면 안 됩니다. 불행에서 는 나와 사회가 한 치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일이고, 그것이 다

내일이 있는 자유

맛볼 수 있도록 공부해야

사람이 하는 노릇입니다. 역사를 태평성대로 끌고 오는 것도 바로 사람들입니다. 그 여건이 부족하다면 예전보다도 더 처참한 역사를 가져올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인간이 천부적으로 만반의 근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이 없고 어저께도 없는 오늘, 이 한 주머니 속에서 허덕이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일이 없고 어저께가 없는 그런 속에서 내일이 있는 세계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잘 살고 있는 줄로 알고 마세요. '우리 주머니 안에서 품자 못하고 그냥 딱쳐오는 대로 살고 있다.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그저 이렇게요. 평생을 또 소로 살 줄 알았더니 평생은 안 가고 그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화현이 돼 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마음공부를 하는데 기

그림 · 최주현

쫓아다녔지 내가 어디 부처님을 진짜 찾아봤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남이 사는 데 쫓아다니면서 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선 파득 깨어난 게 그만 사람으로 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틀날 소를 잡는 데로 팔리게 된 거예요. 팔려서 죽게 됐는데 아프지 않게 죽게 된 겁니다. 그러고는 그 소 모습을 벗고선 사람으로 환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절에 가도 눈에 익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평생을 또 소로 살 줄 알았더니 평생은 안 가고 그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화현이 돼 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마음공부를 하는데 기

가면서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놔라 이겁니다. 자기 주인공이 하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자기는 좀 쫓겨라 이겁니다. 운전자라 차를 몰고 다니는 거지 차가 운전수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운전자 차를 몰바르게 끌고 다니면서 기쁨을 자유자재로 넣어 주고 이겁니다. 나쁜 데 기쁨을 쓰지 말고 좋은 데 기쁨을 써라 이겁니다. 그렇게 차를 잘 끌고 다니려면 부셔지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인간으로 친다면 욕심이 병이 나고 어디가 어떻게 되어 봐야 할지라도, 내가 항상 얘기하죠. 관음보살도 지장보살도 다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요, 그랬으니까 바로 그 마음은 체가 없는 거라, 자기 주인공은 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사위한 겁니다.

그러기에 묘한 거고 유전자에 있기 이전 무전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꼭 찬 무전자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불성 자체가 무전자라면 바로 그 무전자로부터 내 운전수가 운전할 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차를 몰고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내 생명이 있었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와 마음내는 것과 생명과 더불어 아주 존경하라는 얘깁니다. 모든 걸 존경하면서도 바로 중간에 중도로서 중심을 갖고 양면을 다 한마음을 육체와 마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이라면 몸도 여여하게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

다른 방향착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사람으로 그냥 '내가 됐다, 내 것이다, 내가 공장을 하고 있다, 내가 사장이다, 이것은 내 재산이다' 하면서 자꾸 '나는 권위가 있어! 너희들은 하수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넓지 못해서 그리 길지 못하며, 길지 못한 깨달음에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오를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길게 갈 수도 없거니와 인간의 존엄성이나 광대무변한 불성 자체, 그 능력 자체를 손실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무한의 능력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가 계발을 못하는 거죠. 그 길 말하는 거지, 갖지 말란다고 갖지 않고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럼 움직여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움직여지지 않는데 부처를 어떻게 이룰까? 그래서 벽을 치면 붓장이 울리는 걸 알아야 한다고 누구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지만 아직 이런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벽이 막히고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든 나갈 수 있지만 몸통이는 나갈 수가 없죠? 그렇게 지금 몸으로는 벗어날 수 없지만, 마음은 지금 우주 바깥에 어디라도 갈 수 있는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영원한 참나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이라면 몸도 여여하게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자유스럽게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것

29면에서 계속

을 뜻으로 말씀드린 거지, 어떤 거 하나도 가질 게 없는 까닭에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나왔지 쓸모가 없는 거라면 이 세상에 나오질 않았을 겁니다. 아미.

그래서 버릴 게 없기 때문에 가질 게 없으니 일 부러 마음으로 짊어지고 다니지 말고 놓고 다녀 라 이겁니다. 공에서 나오는 거 공에다 놓으면 아 주 가볍게 다니면서도 내가 열쇠를 가졌기 때문 에 항상 쓸 때에 쓸 수 있다 이겁니다. 발휘할 때 항상 발휘할 수 있고요. 그것은 지혜로써 그 잘못 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분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도 분수를 지켜야 하는 문제가 있어야 할 겁니다. 분수를 지 키지 못하면 파장이 일어나니까요. 모든 일체 만 법에 맞입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겁니까?

스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궁금증은 12년 전부터 가져왔고 또 여러 사람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해 스님께 감 히 이런 무례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에 살아야 하나? 먹기 위해 사는 겁니까, 살기 위해 먹는 겁니까? 매일 근심걱정에 싸여 사느 니 목숨을 풀어버리면 아무 고통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살기 위해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먹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데, 목마르면 그대 로 물을 먹고 갑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느냐 하는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벌써 목마르면 내 앞 에 놓인 물을 바로 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물을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벌써 먹어버렸으니 무어라고 말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권타더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살기 위 해서 먹나, 또는 먹기 위해서 사나 이런 걸 생각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하기 이전에 벌써 먹었고 번소에 갔고 벌써 다 치웠으니까요.

추위에 바들바들 떨면서도 봄을 기다리는 그 마음과 같이

그러니 그렇다 저렇다를 다 맡겨 놓으세요. 내가 있기 때문에 참나가가 있고 참나가가 있기 에 근본 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근본은 우주의 근본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거기에다 맡겨 놓고 가신다면,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할 거 없이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놓고 여여하게 가게 됩니다.

그냥 거기에 맡겨 놓으십시오. 아는 것도 참자기 가 알기 때문에 아는 거지 자기 결정대기가 생각이 없다면 목적입니다. 생각을 낼 수 없는데 목적이 없었습니까? 그러니 생명이 없으면 송장이지요. 육체가 없으면 안 보이니까 무효구요. 그러니 삼위 일체가 무효로 돌아갑니다. 삼위일체가 구성패서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이라는 게 들어가죠. 바닷물도 한 그릇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 하나가 전체 우주라고도 할 수 있 는 겁니다. 그러니 실현도 해 보시지 않고 이렇다 저렇다 말로만 얘기 하지 마세요. 무조건입니다.

아니, 형상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허공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믿으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믿으라는 데 왜 못 믿습니까? 차가 운전수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어요?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니 까 구멍이에 치박는 것도 운전수지 다른 누가 그 러는 건가요? 기를 넣는 것도 운전수요, 차를 거꾸로 박는 것도 운전수요, 좋은 길로 끌고 가는 것도 운전수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거기를 믿고 모든 것은 거기에 맡겨 놔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장님이라면 여러분의 짐작기 는 눈 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 뜬 사람 을 쫓아가야죠. 바로 여러분이 눈 뜬 사람이자 눈 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물질세계를 육안으로 만 봐서 알 수가 없으니까요. 심안으로 봐야 됩니 다. 그래서 심안과 육안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버릴 게 없기에 가질 것도 없으니 일부러 짊어지지 말고 놓고 다녀야

자기가 와서 자기가 살 고,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가니까 간 데도 없고 온 데도 없 는 겁니다. 그냥 영원한 자가지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그 자체도 냉 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 한 백자장 사이를 모르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통 속에서, 육신통이라고 한다면 오신통에서 벗어나야 누진으로서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통이라고 한 것은 바깥으로 나와야 내 모든 것을, 오신통을 굴릴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속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속에서만 복작거리지요. 이것을 굴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 바깥으로 나와야 마음대 로 굴리지요.

우리가 그냥 지금 생각하 는 것도 사실은 공해서 고 정됨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한다고 그러지는 말아 야죠. 그냥 그대로 뿌리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그대로 뿌리예다가 맡겨 놓고, 마음으로 다가 '너만이 나를 이끌고 다니 고, 또는 빛이 나게 하는 것도 너 고,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것도 너 고,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것도 너 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무명업식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는 본래부터 나가 없는 것인데 무명업식(無明業識)으로 말미암 아 나를 고정하여 사는 것이 중생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가 본래 공해서 없다면 무명업식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요?

네고, 또 굶고 살지 않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도 너다.' 이렇게 모든 걸 거기가 맡겨 놓고 해야만 되지 이유를 자꾸 따지면은 그 속에는 들어가 볼 수가 없거 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따지지 말고 거기가 자꾸 놓으세요. 아리송하면은 그냥 아리송한 대

이유를 자꾸 따지면 그 속에는 들어가 볼 수 없어요



그림 · 최주현

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은 수공이 가는데요, 정성을 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만 들으면 너무 기복을 바라는 것 같아서요. 어찌해야 하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생긴 병은 보이지 않는 데서 고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 저질러 놓은 것은 자기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기가 말을 잘못했으면 자기가 수습을 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일만 생활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체득을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보이지 않는 데서 고장 난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데서 고쳐야 된다고 이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믿으셔야죠.

그 반면에 우리가 인간은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의 뼈와 살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인과에 의해서 전지에 살던 악업 선업을 다 이 몸통이 속에 지니고, 한 육성의 별성이 움직거리 듯이 몸통이 속에 생명들이 그렇게 인연지어진 대로 지금 움직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업 선업이 한데 뭉쳐진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과거에 살던 자기의 업식이 지금 현실에 자꾸 나오는 까닭이지요.

'아리송하니깐 너만이 네가 있다는 걸 알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가 놓고 말입니다. 그러 니까 자꾸 남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한테다 물어보 세요. '너만이 알고 있잖아' 하고 자꾸 이렇게 정으로다가 참, 풀지 못할 돌도 정으로다가 풀듯

이 하면서 거기가 자꾸, 한 번 놓는데 정을 한 번 치고 들어가고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공부라는 건, 물리가 터지게 하려면 일체를 그냥 거기가 놓고 '내가 있다는 것 도 너만이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생각날 때마다 관하고 집어넣으세요. 일부러 생각하 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 리고 배고프면 '배고프지 않 게 해!' 하고서 거기가 놓 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야 밥 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다 갖다 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조금씩 그 자꾸자꾸 체험을 하면 서, 체험을 해야만 또 진짜로 믿어지고 의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무명에 가려진 나 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던하도 노력 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떨어지면 양상한 가지만 남아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 추위에 바들 바들 떨면서도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과 같이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인내가 있어야 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갖다 주는 거지 하지 않았는데 누가 갖다 줘니까.

여러분 지금 현 세상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시지요? 생활을 하고 계신데 밤이나 낮이나 일을 나가서 그만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움직거리지 않았다면 그 대가가 올 수 있을까요? 대가는 오지 않습니다. 그것입니다. 바로, 내가 마음의 정성을 한 번 했을 때 그 마음의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빚진 것을 갚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도리를 배우고 실천하고 나가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모습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 어지는 것을 모두 아실 겁니다.

그와 같이 인간에게는 자식과 부모이라는 가설, 형제라는 가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인 자가발전소라고 하죠? 주인공이 바로 자가 발전소입니다. 용광로도 되구요. 그래서 거기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맡겨 놓다보면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하나하나 맡겨보고 지켜보면서 거기서 실험도 되고 바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참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알고 있고를 떠나서 불심이 토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이 몸통이가 살아보아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항상 무주상 보시를 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가 천원을 가지고 가든 만원을 가지고 가든 상점에 가서 물건들 살 때에 물건과 더불어 바꾸어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돈 준 것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쓰기 위해서 물건을 샀는데, 어찌 부처님 전에 단돈 천원이라도 정성을 들이 면서 그 천원 낸 거를 생각하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냈다는 생각을 하고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아마 무효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냈다는 상을 두고 했기 때문에 대가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주상 보시로서 내 성의껏 내 가정 형편껏 하면서 식구들 속 썩이지 말고, 또 내 속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인내와 믿음과 정성이 필요

을 풀이면서 남을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단돈 열 마를 시주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병을 난 것도 바로 주인공 에 그렇게 믿고 맡길 수만 있다면, 바로 자기가 믿고 나가는 거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일만. 절대 이거는, 그런 다짐입니다. 자기가 실험 안 해 보고 자기가 체험 안 해보고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공부할 건 없지만 내 마음의 도리를 다 익히지 못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저런 일 들에 고달피고 있는데 마음으로부터 기술어지지 말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 도리를 알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단 한 푼이든 두 푼이든 자기 형체대로 부처님 앞에 갖다 놓고 '일체제불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당신의 형상적인 몸이 내 몸이니 어찌 풀이겠습니까? 주인공! 당신밖에 해결 못하지요.' 하고 내 형체대로 갖다 놓고 정성을 들인다면, 여러분이 아니니 좋고 그 돈을 모아서 또 여러분의 여래의 집을 만든다면 그건 더욱 더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개인의 집이 아닙니다. 여래의 집이라 는 건 부처님의, 이 여러분의 일체 만물만생의 집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성을 지극하게 할 수 있다면, 바로 제일 큰 게 무엇 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마음 썸씀이입니다. 인간 이 살아나가는 데에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을 울바로 가지고 자기 몸을 똑바로 이끌고, 자기 마음으로 하여금 몸을 똑바로 이끄는 반면에 몸 은 마음을 이끌고 이렇게 해서 양면이 온전하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인공을 믿고 일체를 거기에 맡겨놓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Advertisement for a book titled '삶은 고통이 아니다' (Life is not suffering). The text includes a quote: '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and '삶은 고통이 아니다'. It also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Daehan Buddhist Sangha and the publisher, Yes24.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 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예시4주